

## '88 올림픽과 學校給食



〈學校給食 座談會〉

- ... 本會는 1982년 10월 29일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88 올림픽을 앞두고 學生...
- ...體位向上 및 體力強化가 보다 요청되는 現時點에서 學校給食의 必要性을 더욱...
- ...切感하여 斯界의 專門家와 主務部 實務陣, 그리고 현재 學校給食을 하고 있는...
- ...國民學校長과 學父母를 모시고 學校給食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言論人이 參席...
- ...한 자리에서 所見을 나눈 바 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

金 命 鎬

延世大學校 原州大學長・醫博  
韓國學校保健協會 副會長

### 開催의 意義

우리 나라 國民의 대부분이 各自의 平生에 있어서 國際올림픽大會를 꼭 한번 구경하는 것이 所願이었다. 이제 1988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올

림픽이 열리게 되었으니 마치 꿈이 事實로서 實現된 것과도 같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할 때까지는 人力, 物資, 時間의 動員面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國民의 言行이나 生活面에서 改善하고 준비할 것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巨大한 舉國의 國際行事를 施行하는데 대한 國民의 精神의 覺悟와 다짐은 얼마나 重要한 準備인지 모른다.

또 하나 重要한 것은 '88 올림픽 開催를 하나의 重要한 契機로 해서 運動競技에 있어서의 勝利의 基本要素가 되는 스포츠의 大衆化·科學化 및 生活化는 물론 더 나아가서 國民體力의 向上 및 體育振興을 위한 劃期的인 政策樹立과 計劃의 推進이 要求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靑少年의 體力增強과 健康增進이 특별히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妥當한 일이다.

靑少年의 體力과 健康을 위해서는 當然 學校保健의 重要한 一部分을 차지하게 된다.

靑少年의 生活에 있어서 重要하고도 많은 부분은 바로 學校生活이다. 學校에 있어서의 健康管理은 學校人口 즉, 學生의 健康과 밀접한 關聯을 갖게 된다.

學校保健은 靑少年(學生)에서 볼 수 있는 事故나 疾病을 豫防하는 消極的인 役割뿐 아니라 健康의 增進, 더 나아가서 體力強化라는 積極的인 役割도 하게 된다. 學校保健事業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課題中에서 學校給食은 健康增進과 體力強化에 큰 功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學校給食事業은 불과 30년의 짧은 歷史를 가지고 있어 아직도 不振한 狀態인 것을 솔직히 是認하게 된다. 더우기 그간의 學校給食은 外援依存의 救護給食이라 파행적 給食이었고, 最近 10년간의 國庫에 의한 給食도 여전히 部分給食, 不完全給食, 主食中心給食의 脫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만일 歐美諸國이나 日本과 같은 나라 모양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全體 國民學校 學生에게 滿足할만한 學校給食을 施行했더라면 오늘날 靑少年 더 나아가서 國民體位는 보다 向上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靑少年의 體力에 關心이 있는 많은 人士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 속히 보다 바람직한 學教給食의 實施를 主張 또는 呼訴하는 점이다.

오늘 言論界 人士들을 모시고 學校給食 專門家 즉 學界, 行政部署, 一線給食學校 등 各界로부터 좋은 意見을 모아 國民全體에 滿足할만한 學校給食이 學校保健의 主要한 一分野임을 다짐하고 學校給食이 바로 직접 靑少年 體力向上과 健康增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점을 傳達하고자 하여 이러한 座談會를 갖게 되어 韓國學校保健協會의 任員의 한 사람으로서, 韓國學校保健協會의 任員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오랫동안 學校保健에 心血을 기울여 온 學者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演士 여러분께서 솔직한 見解와 體驗을 發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百年大計의 수립과 永遠한 國家發展에 크게 貢獻이 되는 舉事가 되기를 바란다.

成 樂 應  
梨花女大 醫大 教授

### 學校給食의 營養學的 意義

학교 급식의 의의는 아동과 학생들의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국민 체력·체격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영양이란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각종 물질을 외부로부터 도입하여 그것을 동화·이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삶에 요구되는 물질을 영양소라 하고 당질, 단백질, 지방, 광물질 및 바이타민 등이 있다. 그 외에 수분과 일광 및 공기도 있으나 이들을 영양소라 호칭하지는 않는다. 위에 말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물질을 식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식품에는 어떤 한 가지만 먹어서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식품은 자연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완전식품은 없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출생 후 일정 기간 즉, 생후 약 6개월까지는 모유나 인공 영양아에 있어서의 우유나 산양유는 완전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완전식품은 없고 식품은 그 나름대로의 지니고 있는 영양소에 따라 자기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당질식품(곡류, 서류 등), 단백질식품(육류, 어패류, 두류 등), 칼슘식품(유류, 뼈째먹는 생선 등), 바이타민 및 광물질식품(야채류, 과일류 등) 및 지방식품(버터, 잣, 호도 등)으로 식품을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식품은 매일 그 나름대로 필요한 양만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 생활에 필요하다.

위와 같이 식품에는 완전식품이 없어 우리는 편식을 가장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식생활은 집안 어른들의 식생활이 어린이의 식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어른 밥상 옆에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 보면 어른들의 편식 습성을 어린이가 그대로 따르게 된다. 더구나 도시락의 준비란 어른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쉽거나 어린이의 기호에 그대로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학교 급식은 전문가인 영양사에 의하여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계산하여 각종 식품을 골고루 배합하고 더구나 매일, 주마다, 월간 계획서가 짜져 있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모든 식품이 제대로 배합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정에서는 어린이가 자기 기호를 쉽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식품을 기피할 수 있으나 학교 급식에서는 단체 행동으로 되어 있어 본인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먹어야만 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주위 친구들은 잘 먹고 있으며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는 점에서는 할 수 없이 먹게 되고, 먹고 나서 보면 별 이상도 없고 그 식품에 대한 자신도 생겨 그 후부터는 먹게 되어 있다. 즉,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하루 한끼만이라도 균형이 제대로 잡혀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느끼게 된다. 때로는 어떤 식품에 대하여 '어라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현상은 병적 상태에서 병명과 원인을 규명하여 치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편식하는 어린이에 있어 성장 발육의 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능 발달도 늦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아동이나 학생들의 도시락 점심을 보건대 그 내용이 쌀밥 한 공기 정도에 반찬이라곤 그야말로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한 부식이라고 하겠다. 그러다 보면 우선 열량에 있어 250~450Kcal 정도가 보통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점심 한끼의 열량은 800~1,000 Kcal라고 한다. 그렇다면 열량만 보더라도 1/4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단백질, 칼슘,

철분 등 또는 각종 바이타민 등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하다. 더우기 우리 나라 국민 학교 어린이 중에는 아직도 그나마의 점심을 결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린이의 전진한 발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모자라는 국고로 충당키 어려운 학교 급식이라고 하여 원조 물자나 기타 원호 기관을 통하여 한 컵의 우유, 150g 정도의 빵 한 개를 공급할 경우도 있었으나 이런 것은 진정한 학교 급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 1956년부터 동경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 급식 지역 아동과 비지역 아동을 비교한바 10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전국민 스스로가 적극 호응하게 되어 전국민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현재는 중·고교까지 일부 개인 부담을 하면서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후 국민 소득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학교 급식보다는 가정 식사가 질적으로 좋고 국민의 영양적 상식이 좋아지면서 식탁 계획이 좋아져 일부에서는 학교 급식 폐지론까지 나왔었으나 그래도 계획적인 학교 급식이 아동 발육에 좋다는 결론을 얻어 그대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2차 대전 후 37년이 지나면서 일본 어린이의 체격과 체력의 발달은 식생활 개선에 그 기초가 있다고 하겠다. 그 식생활 개선의 기본은 역시 학교 급식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며 5,000년내 내려오는 식생활의 개선은 어린 세대부터의 식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학교 급식이다.

현재 우리 나라도 해방 후 30여년이 지나면서 식품 섭취 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국민 식생활은 쌀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아직도 국민의 체격과 체력의 발달은 부족함이 없지 않다. 그런 결과는 각종 국제 경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로도 알 수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인구의 수치로 보아 체격과 체력의 한계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전의 일본인이나 중국인의 그것에 배

하면 우리는 너무나 발달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경기가 체력과 체격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과거와 같이 아직도 고추같이 맵다거나 짜게 먹어 짹짹하게 경기를 한다거나 고추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도 부촌의 국민 학교 어린이와 변두리나 농·어촌 어린이의 체격·체력 및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보건대, 역시 부촌 어린이에 있어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같은 경제적 형태라 하여도 농촌 어린이에 비하면 어촌 어린이의 체격이 크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런 결과를 식품 섭취 상태와 비교한 바 어촌 어린이의 경우 농촌 어린이보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오किन대, 식생활은 균형을 갖춰야 하고 우리의 식생활은 개선되어야 하며, 그래야 체격·체력이 증강된다. 그러기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은 우선 학교 급식에 있다고 하겠다. 학교 급식을 국가 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 모두가 내 아들, 내 딸, 내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여 서로가 돕고 노력하여야겠다.

金 成 培  
體育部 學校體育課長

우리 나라가 學校給食을 실시한지도 한 世代가 지났다. 日本은 1945년 戰後의 援助物資로 學校給食이 시작하였지만 오늘 現在 初等學校는 99.4%, 中等學校는 83%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美國은 이보다 조금 앞서서 剩餘農産物을 처리하기 위한 手段으로 學校給食을 실시한 것으로 안다.

우리 나라는 다 아다실이 6.25 動亂 이후 戰災 兒童援護를 위한 資材로 學校給食을 시작하였지만 현재 國民學校 兒童數 540萬名 중 15萬 6千名 실시로 겨우 2.8% 실시하고 있다. 이에 所要되는 豫算은 1982년에 62億원으로, 이는 給食學校의 食品費·管理費로 쓰이는데,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에는 兒童 1人當 350원, 農漁村學校의 경우에는 146원이 支援되고, 都市學校의 경우에는

管理費에만 약간의 補助하고 있는 실정이다.

外國의 경우를 보면, 대개가 食品費는 學父母가 負擔하고 管理費는 中央政府나 地方政府가 負擔하고 있는 것이 常例인 것으로 안다.

1967년에 우리 나라와 日本의 어린이의 體重을 比較한 統計에 의하면, 한 살 때에는 우리 나라 어린이가 日本의 어린이보다 0.3그램 앞서다가 15세 때는 우리 나라 어린이가 오히려 5.5그램 뒤지고 있다는 사실의 原因 중 學校給食이 차지하는 比重이 크다고 할 때 學校給食의 必要性을 더욱 切感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必要한 學校給食이 오늘 현재 2.8%에 불과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特有의 事情으로 因한 財政投資 不足이 큰 事由의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 學父母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우리 나라 學校給食의 展望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믿는다.

繼속하여 學界에나 國民 여러분께서 學校給食을 理解해 주시고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이러한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曹 圭 桓  
水原古索國民學校長

### 學校給食의 效果

學校給食의 效果를 大別하여 건전한 身體의 發達, 情意的인 面의 成長, 認知的인 面의 成熟, 새마을 敎育의 深化 및 學父母의 意識改善 등 크게 다섯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健康을 위한 營養給食過程]

첫째, 健全한 身體發達은 學校給食을 보다 營養的인 給食이 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效果다. 늘씬한 體格, 無病한 體質, 강인한 體力을 가진 사람을 健全한 身體의 所有者로 볼 때 이런 體格, 體質, 體力의 根源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두말할 것없이 이는 人間이 섭취한 營養이 主된 役割을 했다고 본다.

요사이 우리 나라에서 國際的인 運動競技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때마다 身長의 劣勢, 後半의 弱勢, 유연성의 不足 등을 實感한다. 나는 이

국제 경기에서 이거면 例外라고 하고, 지면 당연한 歸結이라고 생각한다.

大韓民國 사람으로서 大韓民國 選手가 이기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에는 그런 理由가 있다.

요사이 國際競技에 나가는 우리 나라 선수들은 과거 어떻게 자랐는가?

이 선수들은 60年代 初에 태어났다.

當時의 國民所得이 68\$밖에 되지 않았으니 가난한 집의 아기 가진 어머니의 영양이 어떻게겠는가? 그러니 胎兒인들 제대로 자랐겠으며 母乳인들 營養이 좋았겠는가? 젖에서 밥으로 전환할 때 이유식이나 한번 제대로 먹었는가?

영양이 실조된 눈이 백군한, 사지가 가느다란, 배만 커다란 어린이들을 그 時節에 우리들은 많이 보아 왔다. 學校에 入學하니 간식한번 제대로 먹었는가? 저학년 때는 아침은 7시에 먹고 登校하여 공부하다 오후 1時에나 下校하여 歸家하면 2時, 이 때에 찬밥덩이나 먹었고, 高學年이 되어 점심 도시락으로 밥과 김치, 한참 자랄 나이에 이렇게 먹고 빈혈에, 버짐에, 구각염에, 영양 실조 속에서 자란 어린이가 요사이 선수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나 별로 잘 먹는 어린이는 그때 얼마 없었다) 그러기에 이거면 例外이고, 지면 당연한 歸結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사람들은 단련은 많이 했다. 그러나 體格과 體力를 바탕으로 하는 競技에서는 단련만 가지고는 절대 不可能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알맞는 운동으로 잘 자라 體格과 體力의 基本이 充分할 때 비로소 기술적인 단련의 效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初·中等學校에서도 體育時間이나 特別活動·體育部 活動으로 많은 운동을 한다. 營養 좋은 學生에게는 참으로 좋은 效果가 있겠으나 營養이 부족되는 學生은 오히려 害가 될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成長期 學生에게 營養攝取하는 問題는 참으로, 重要하며 그 方法으로 學校給食과 學校給食을 통한 어머니의 영양 및 조리교육을 부르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學校給食이 重要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도 1972년부터 국민 학교에 學校給食을 本格的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된 오늘까지 그 普及率은 全國民學校 學生의 3%에 불과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하루 속히 全國적으로 學校給食을 실시하여 全國民의 食生活이 經濟적으로 營養적으로 改善되어 體位와 體質과 體力를 增進시킴으로써 國家發展의 基本을 튼튼히 하는데 寄與해야 할 것이다.

'86 아시아 게임, '88 올림픽 출전 선수는 현재의 선수보다 좀 더 우수한 선수가 나오겠지만 기교적인 種目を 제외한 體格과 體力를 바탕으로 하는 種目이 不振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種目까지도 좋은 成績을 낼 수 있는 時期는 아마도 全國 初·中等이 다 學校給食을 하고, 學校給食을 통한 어머니의 營養 및 조리교육이 보급되었을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일 것이라고 생각되니 學校給食의 普及은 火急을 要하는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情意的인 面의 給食效果를 말씀드리겠다.

점심 시간이 되어 점심 준비를 하고 똑같은 점심을 즐겁게 먹고 힘을 합하여 뒷처리를 하는 과정(情意的인 給食活動過程)에서 情意的인 面인 社會性·協同性·責任感·奉仕心·平等意識·肯定的 態度 등을 기를 수 있는 참으로 重要的인 教育의 場이며, 좋은 效果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非給食學校의 學生이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 반찬이 시원치 못하여 6年間을 도시락 뚜껑으로 가리고 점심을 먹었다면 어떤 인간이 되었겠는가?

비굴한 사람, 열등 의식으로 껍찬 사람, 또는 갈등 의식을 가진 사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될게 아닌가? 이런 人間을 공산당은 노리는 것이다.

반대로 잘사는 어린이는 6年間을 뽀내고 빠기면서 도시락을 퍼놓고 먹었다고 하자. 이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못났으면서도 잘난 체, 모르면서도 아는 체 자

존심만 강하고 個人主義·利己主義가 되고 말 것이니 이것이 우리 社會가 바라는 人間像은 아닌 것이다.

今年 4월에 교감 선생님이 새로 오셨다. 4個月이 지난 지금 “어째서 本校 어린이는 싸우는 學生이 별로 없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싸우는 장면을 보지 못하겠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가?

社會性的인 伸張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給食 時間에 분단별로 짝지워 점심을 먹으며 정답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또 짝이 바뀌어도 給食하는 속에서 이루어졌고, 똑같은 飲食을 먹음으로써 平等意識으로 相互寬容하고 相互尊重하는 習慣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믿고, 이 給食活動過程을 情意的인 教育的인 場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이다. 공동 작업을 통한 協同性, 당면 활동을 통한 責任感·奉仕心 등 校學의 時間이 없다.

다음에는 認知的인 側面的인 教育效果를 말씀드리겠다.

給食이 끝나고 약 10分 정도 給食에 대한 教育을 한다. 영양교육과 社會機能的인 教育이나 때로 給食活動의 반성 교육도 한다.

食單에 관심이 올랐다. 食單에 대한 공부를 한다. 產地에서 食을 가꾸는 이야기, 우리 식탁까지 오는 과정을 알으로써 社會의 技能을 공부하고 自己가 社會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공부하는 것이 社會技能教育이며, 食을 먹으면 그 營養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며 하루 얼마쯤 먹어야 하는지 등 학년 정도에 맞게 教育課程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을 認知的인 給食教育課程이라고 한다. 물론 混食의 必要性, 균형있는 營養 편식의 폐 등 食고루 學習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새마을 教育에 대한 效果를 말씀드리겠다.

都市型 給食學校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學校가 많건 적건 實習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自己가 먹을 채소를 재배하여 給食함으로써 自活의 意志를 키우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精神이 몸에 배도록 했다고 생각한다. 學校의 화단에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것을 잘 보호했다가 익은 다음에 나누어 給食했더니 그

이듬해부터는 앵두 따는 어린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實習地의 딸기를 따는 어린이도 없었으며 토마토를 길러 給食 공여하는 등 재미있는 教育的인 場面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다음에는 學父母의 意識教育的인 效果를 말씀드리겠다.

學校給食에 當番으로 어머니가 登校하여 給食을 하므로 給食의 모습을 보고 또 營養에 대한 좌담을 함으로써 食生活改善에 도움을 주며, 學校給食 主體는 學父母임을 自覺하고 學校給食經營에 參與토록 한다. 겸하여 學校에서 敎員들의 生活像을 직접 봄으로써 敎員을 理解하고 敎員을 존경하며, 올바른 子女教育觀을 갖도록 해주기도 한다.

또 教育的인 沮害要素를 달하다 보면 社會의 意識構造의 問題性이 提起되고, 그 問題點 解決을 위해서 講師를 초빙 講習도 받게 하고 討議하게 되며, 實踐決意도 自生되어 家庭問題·社會問題가 改善돼 가는 것으로 보고 더욱 拍車를 가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學校給食이 健康面으로 보나 情意的인 側面으로 보나 認知的인 側面으로 보아 重要的인 教育임에 異議가 있을 수 없다. 이웃 나라 日本에서는 學校給食을 戰後의 教育的인 特色으로 내세우며 만일 學校教育에서 給食教育을 제외한다면 教育的인 90% 밖에는 達成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고, 또 學校給食教育을 特別活動課程에 포함시키고 있음은 심히 當然한 일로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教育을 管掌하는 文敎部에서 體育部로 移管되었는데 納得이 안간다. 아마도 이 일로 因하여 學校給食은 教育이 아니고 새마을·淸掃나 學生貯蓄처럼 他部處의 協調事項 정도로 理解하여 그나마 10年間이나 애써 쌓아올린 基礎마저 잃게 될까 염려된다.

또 學校給食을 하려면 給食施設, 豫算確保, 炊事 物品購買, 火氣注意, 衛生管理 등 어려움이 많을뿐 아니라 給食活動課程의 研究作성과 實踐, 認知的인 給食教育課程의 研究作성과 教育 등은 물론 學父母의 食生活改善의 啓蒙 등 研究的인 開發·實踐해야 할 部面이 허다한데 그에 대한 反對給付的인 加算點마저 없어졌으니 學校給食은

더욱 難關에 處해 있다.

도서·벽지 加算點이 1~5점까지 있는 各道에서는 給食學校加算點은 누구나가 當然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는데, 특별시와 직할시 事情만을 보고 廢棄되었음은 是正해야 할 일이다.

이제 體育部가 學校體育을 管掌, 學校給食을 管理하게 됨으로써 體育部도 體育教育, 即 教育 管掌部處로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루속히 學校給食이 擴大·發展되는 各種措施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기 期待하는 바이다.

민 병 인  
學父母 代表

### 學校給食에 대한 所感

첫째, 학교 급식 후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고, 또 잔병이 없어졌다고 본다.

둘째, 농촌의 바쁜 일손 때문에 집을 비워도 아이의 점심은 학교 급식을 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된다.

셋째, 농촌에는 급식이 꼭 필요하다. 점심 시간을 제때 맞추기가 힘들고 간식도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올 것이니까 걱정이 없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월 5,000원) 집에서 자주 먹을 수 없는 우유, 통닭튀김, 짜장면, 사과를 먹어 건강에 좋은 것 같다.

네째, 학교 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책임 의식과 이웃과 친하여지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긍금증을 풀 수 있어 좋다(급식 후에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다섯째, 선생님이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물심양면으로 사랑하고 건강이나 학업면에 생각하여 주는 점이 많다.

농촌 학부모에게 학교 급식을 더욱 권장하여 학교 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金 命 鎬

延世大 原州大學長·醫博  
韓國學校保健協會 副會長

### 結 論

이제 梨花女子大學校 成樂應 學長께서 營養學者라는 專門家の 立場에서 學校給食의 營養面에서 본 價値를 中心으로 말씀해 주셨고, 一線學校 給食學校의 校長으로서 조규항 校長은 學校給食의 教育的 側面을 實感있게 말씀해 주셨다.

體育部의 關係官은 우리 나라의 學校給食의 現況을 솔직히 發表해 주셨다. 현재까지는 우리는 滿足할만한 給食을 못해 왔으나 展望은 絕對로 悲觀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學校給食이 必要하고 有益하고 體力向上이나 健康增進에 크게 役割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認識할 수 있다. 건전한 學校保健이 크게 役割하게 된 體力의 向上은 直接 間接으로 '88 올림픽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戰績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장래 '92, '96 올림픽에 있어서의 戰績에는 물론 國家發展과 國力伸張에도 크게 寄與할 것을 믿는다.

學生의 保健을 염려하고 國民體力의 劣勢를 안타깝게 切感한 나머지 오늘 마련된 이러한 契機를 통하여 우리는

첫째로, 83년도 新學期부터 學校給食의 全面實施를 主張한다. 母法인 學校給食法이나 同法 施行令이 制定·公布되었으니 이것이 死文化되지 않도록 이에 隨伴되는 施行規則도 조속히 制定하여 新學期부터 全面 實施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合理的인 運營方案을 모색하여 最少限의 豫算으로 最大限의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을 關係當局에 促求한다. 現행 學校給食制度 중 交通이 不便한 도서·벽지를 제외한 地域의 學校別 製빵, 施設을 施設費는 물론 人件費를 包含한 管理費의 浪費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理由인즉 學校에서 年에 200일의 給食을 위하여 165일이라는 空白日數의 施設費나 管理費를 勘當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